

박서보 "21세기는 정신병동...예술은 폭력 아닌 치유여야"

6 January, 2016 | 이향휘 기자



CULTURE

매일경제 50년 미래경제 50년
2016년 1월 6일 수요일 A31

훗 최고 화랑 '화이트큐브'서 개인전 여는 박서보

“21세기는 정신병동... 예술은 폭력 아닌 치유여야”

림이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기 바랍니다.”
오늘날의 성공은 그냥 하늘에서
뚝 떨어진 게 아니다.
“1982년 개인전 할 때 100호가
300만원이었는데도 안 팔렸어요. 아
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속칭 ‘거
지’였지요. 그래도 결심할 안 했고,
부모 탓 안 했어요. 자기가 어떤 신
념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문제지.”
길을 잃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
했다. “예술가는 머리만 굴려서도,
몸만 굴려서도 안 돼요. 중요한 것은
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
고, 식지 않은 열정이 있어야 하죠.
젊은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보라고
해요. 잡식이라도 상관없죠. 다만 다
읽고 나면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
버려야 합니다.”
7일 유럽으로 떠나는 그는 어떤
꿈을 꾸고 있을까. “1998년에 뉴욕
현대미술관(MoMA)에 갔을 땐 정
말 대단하구나 싶었는데, 작년에 갔
더니 ‘아 별것 아니구나’라는 생각이
들더군요. 그 사이 내가 많이 바뀐
거죠. 미국 기자와 인터뷰하다가 제
가 그랬어요. ‘당신이 죽기 전에 난
1000만달러 작가가 될 것’이라고.
MoMA 회고전도 불가능하다고 생
각하지는 않아요.”
올 한 해도 작년만큼이나 숨 가쁘
다. 3월 12일 화이트큐브 전시가 막
을 내리면 홍콩 페로렝갤러리에서
개인전이 이어지고, 4월엔 도쿄갤
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. ‘100만달
러 작가’가 허언이 아니었듯이,
1000만달러 작가의 꿈도 실현될 날
이 올까. 이향휘 기자



서울 성산동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서보. (이승환 기자)

민기지 않나 봐요.”
사람들도 묻는다. 어떻게 화이트
큐브에서 전시를 열게 됐는지. “화
이트큐브 디렉터 캐서린이 지난해 5
월 베니스비엔날레를 보러 왔다가
단색화 전시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
다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. 스텝메
일로 처리돼 한 달간 몰랐다가 뒤늦
게 보고 연락을 취했죠. 10월 15일
작품을 고르러 와서 16점을 고르더
니 17일 새벽에 갔어요.”
화이트큐브가 주목한 작품은
1967년부터 1981년까지. 연필로 굵
기를 반복한 ‘연필 묘법’ 16점이다.
작품이 더 있었다면 더 벽에 걸었
을 상황이다. 화업 60년인 그의 작품
중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연대다.
“화랑에서 전 세계 1급 컬렉터에게
팔아준다고 얘기하더군요. 벌써 몇
점은 팔린 눈치예요. 허허.”
세계 미술계 주류에 단숨에 진입
한 단색화의 힘은 무엇일까.
“서양의 추상은 비구상입니다. 자
연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해 추상화하
는 것이죠. 단색화에선 무엇을 중점
적으로 봐야 하나면 ‘행위의 무목적
성과 반복성’입니다. 마치 스님이 하
루 종일 목탁을 두드리면서 자신을
비워나가는 행위와 같아요. 여기에
그리는 과정에서 물성이 생기는데,
그 물성과 정신성, 무목적성과 반복
성이 혼합돼 합일이 돼야 하는 거
죠.” 서양의 미니멀리즘이 이미지를
없애는 개념 작업의 산물이라면 단
색화는 정신성이 강조되는 비움의
미학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.
“21세기는 스트레스와 고통, 불
안으로 점철된 정신병동 시대죠.
예술이 시각적인 폭력이 아닌 치유
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. 저는 제 그

**1967~81년 연필묘법 16점 발표
단색화 본 훗화랑측서 적극 추진
“1000만달러 클럽 작가 될 것...”**